

명품강소기업 현장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광주시 강소기업육성협의회
찾아가는 현장코칭 등
R&D·수출 역량 높이기 총력

광주시가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명품강소기업을 광주대표 기업으로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R&D와 수출 역량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27일 오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22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장, 명품강소기업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명품강소기업육성협의회를 개최해 2018 명품강소기업 추진 성과와 2019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참석자들은 명품강소기업들이 R&D와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업운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강사를 선정해 직접 'R&D 전문가가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코칭'을 하는 사업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사업과 연계해 4년간 총 14억원(국비 8억원, 시비 6억원)예산으로 R&D 기획부터 지식재산권 획득, 시제품 제작 등 상용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 27일 오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2019 명품강소기업육성협의회에 참석해 22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장, 명품강소기업협의회 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단계까지 지속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성장잠재력이 큰 수출유망기업을 발굴·선정(명품강소기업 10개사+협업기관 추천기업 10개사)해 기관협업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 형태

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광주시, 중기청, 관세청,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제고용진흥원이 주축이 돼 참여기업을 현장 진단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해 지원한다. 기존 공모 방식에서

탈피해 성장잠재력과 의지가 큰 업체를 선정해 전문가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지원을 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명품강소기업 100개사와 PRE-명품강소기업 20개사를 총량제로 운영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앙정책사업과 연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 육성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명품강소기업 사무국을 설치하고, R&D 및 마케팅 분야 전문인력도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기술 개발, R&D과제 기획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중장기 관점에서 신사업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명품강소기업 육성에 나서 명품강소기업 100개사 및 PRE-명품강소기업 20개사를 발굴하고, 스타기업 15개사, 글로벌강소기업 23개사, 월드클래스 300 6개사 등을 선정해 바 있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기업이 경제성장의 축을 이루는 만큼, 우리 기관들이 기업 중심의 인식을 기반으로 투자하기 좋은 조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소방본부 최근 4개월 무등산 산악구조 76건 절반은 거동불편·근육통증 등 개인 질환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산악구조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동한 무등산국립공원 산악구조는 76건(72명)으로, 50대 이상이 그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8일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4개월간 무등산 내 산악구조 원인으로는 체력저하로 인한 거동불편, 근육통증 등 개인 질환자가 34명(44.72%), 낙상 등 실족환자 30명, 조난 5명 순이었다. 산악구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77건)과 비슷했다. 장소별로는 장봉재 14건(18.42%), 토끼등 10건(13.1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탐방객이 가장 많이 찾고, 낙상환자보다는 장시간 산행으로

인한 체력저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탐방객이 많이 찾는 휴일과 특히 하산 시간인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39건(51.31%)의 구조활동으로 순간의 방식과 체력 저하로 산악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기식 119특수구조단장은 "해빙기에 개인 질환자가 34명(47.22%), 낙상 등 실족환자 30명, 조난 5명 순이었다. 산악구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77건)과 비슷했다. 장소별로는 장봉재 14건(18.42%), 토끼등 10건(13.1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탐방객이 가장 많이 찾고, 낙상환자보다는 장시간 산행으로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자치구 주민과의 대화' 마무리

북구, 광주호 마을 상수도 등 약속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제4수원지 상류와 광주호 상류 마을에 상수도가 설치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오후 북구청에서 진행된 '북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무등산 고지대인 4수원지와 광주호 상류 8개 마을에 대해 2020년부터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돗물 급수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수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마을은 4수원지 상류마을인 화암, 배재마을과 광주호 상류 충촌마을 등 6개 마을 등 총 8개 마을이다. 시는 급수공사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상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급수대상 구역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날 북구청은 이 시장에게 ▲사회복지예산 경비의 시와 자치구 부담기준 제도개선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창업기업 성장센터 건립 등 3건을 건의했다.

또 주민들은 이날 대화에서 ▲첨단2단계 산단 완충녹지 내 주차장 조성 ▲국립박물관 신규 진입로 개설 ▲남도향토음식 박물관 시설개선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지원 ▲4수원지 인근 생활환경 개선 ▲북구보건소 및 두암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 시장은 "국립박물관 입구가 비정형적인 5거리로 신호체계가 복잡해 신호위반 및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교통정체도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국립박물관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개관한지 12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 됐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임을 감안해 시설과 콘텐츠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북구 시니어클럽 역시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북구를 마지막으로 올해 자치구 방문을 마쳤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학기 맞아 학교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광주시는 봄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관련 시설 총 29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67반 26명)이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재료 공급·보관·조리·배식 등 단계별 위생관리사항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등의 세척·소독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조리장 방충·방서 시설 관리 ▲식품

우수 관리 등이다.

또 학교급식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조리식품, 환경검체 및 학교 다빈도 제품식품(완제품), 비가열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도 수거·검사도 한다.

이 밖에 학교 영양사·조리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세균오염도측정기(ATP)를 활용해 급식소 조리실 내 갈·도마·행주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동참합시다" '푸른하늘 지키기' 민관합동 캠페인

광주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27일 유스퀘어 광장에서 시민 주도 민관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시, 자치구, (재)국제기후환경센터를 비롯해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푸른하늘리더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캠페인은 자발적인 차량2부제 참여 등 시민실천을 독려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의견 공감대를 증진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중교통 이용, 외출 자제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푸른하늘리더단은 미세먼지 저감 행동 피켓 홍보, 대응요령이 담긴 리플릿 및 마스크 배부 등의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미세먼지 발생원 환경감시 등 대기질 개선활동도 펼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올 행사 총괄 예술감독 공모

광주시는 올해 4월부터 열리는 '2019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행사 총괄 지휘를 맡을 예술감독을 공개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최근 5년간 축제 또는 페스티벌 등의 총감독(예술감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술감독은 축제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사무국 및 분야별 공연단체 선정 등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프로그램 기획·개발까지 행사 전반을 지휘하게 된다.

또 야외공연과 거리 행사에 관심 있는 전국의 공연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창구역할도 맡는다.

응모자는 3월4일부터 7일까지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광주문화재단 시민문화관광팀(062-670-7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9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봄 시즌(4월13일-5월4일), 가을 시즌(9월 7일-10월 26일)으로 나눠 운영되며, 여름 시즌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맞춰 7월13일부터 8월17일까지 매주 토요일 확대 운영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훔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